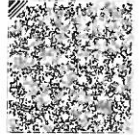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국립인천검역소1339
국립인천검역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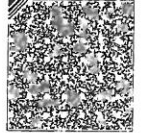
제목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안내

1. 평소 검역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검역감염병 콜레라가 2001년 국내 콜레라 집단 발생 이후 15년 만에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콜레라 확진 환자(남, 59세)가 발생됨에 따라 콜레라 개요 및 발생현황과 예방수칙 안내를 붙임(보도자료)과 같이 제공하오니 콜레라 예방 및 감염병 예방 홍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콜레라 예방수칙 ▶

- (식당) 안전한 식수를 제공한다.
-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물과 음식물은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한다.
-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 30초 이상 손씻기를 한다.

붙임 1. [보도자료]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1부. 끝.



2016. 08. 24

국립인천검역소장

수신자 국가정보원인천항만분실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세관장, 인천지원청,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경찰서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수산물관안전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인천광역시 중구보건소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보건행정과장), 웅진군보건소장, 인천항만공사사장,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인하대학교병원장, 가천대학교길병원장, 인천항보안공사사장, (사)인천항여객터미널 사장, 한국선주협회 인천지회장, 인천항 도선사회장, 인천관광협회회장, (주)단동훼리 인천사무소장, (주)대인훼리 인천사무소장, (주)범영훼리 인천사무소장, (주)연운항훼리 인천사무소장, (주)위동항운 인천사무소장, (주)진인해운 인천사무소장, (주)진천항운 인천사무소장, (주)한중훼리 인천사무소장, (주)화동훼리 인천사무소장, 유니프로스 인천사무소장, 월웁슨협운(주), 협성해운(주), 한성여행사, 국제1여객터미널 관광안내소, 국제2여객터미널 관광안내소

검역관 안남임 검역관 신응용 검역과장 노희원 국립인천검역 2016. 8. 24.
소장 이순희

협조자

시행 검역과-1505 (2016. 8. 24.) 접수

우 22346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 (항동7가) 국립인천검역소 / <http://>전화번호 032-883-7503 팩스번호 032-891-1251 / namia99@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배 포 인	2016.8.23. / (총6매)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감시과 수인성질환과
과 장/ 담 당 자	조은희/이형민 이동한/박숙경 곽효선/홍사원	신 화	043-719-7120/116 043-719-7160/7165 043-719-8111/8115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 ◇ 15년 만에 국내 콜레라 발생 확인
- ◇ 8월 18일 신고된 환자(남, 59세) 검사 결과 콜레라 확진
- ◇ 2001년 국내 콜레라 집단 발생 이후 15년 만에 국내 발생 추정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01년 이후 15년만에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콜레라 환자가 신고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16년 8월 18일 광주광역시 소재 미래로21병원에서 관할 보건소로 환자(남, 59세)가 신고 되었으며, 8월 22일 실험실 검사 결과 콜레라균(*V.cholerae*) 확인과 2016년 출입국관리기록상 해외여행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보건당국은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2003년 이후 국내에 신고된 콜레라 환자는 모두 해외유입환자였다.

□ 콜레라는 콜레라균(*V.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 1 -

133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7

1339

○ 잠복기(감염 후 증상발현까지 걸리는 시간)는 보통 2~3일(6시간 ~ 최대 5일)이며, 특성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설사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국내유행을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도 담당자와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 발생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콜레라 예방수칙 ▶

- (식당) 안전한 식수를 제공한다.
- 오염된 음식을 섭취 금지. 물과 음식물은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한다.
-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음식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 30 초 이상 손씻기를 한다.

<붙임> 1. 콜레라 역학조사개요

1. 콜레라 개요
2. 콜레라 개요
3. 콜레라 발생현황
4. 손씻기 홍보자료



- 2 -

1339

붙임 1

콜레라 역학 조사 개요

□ 인시경위

- '16.8.10일 광주 서구 소재 거주 59세 남성이 설사 증상이 발생하여 당일 미레로21병원에 입원 후, 해당병원이 광주 서구보건소에 콜레라 환자로 신고(8.18)

□ 역학조사 결과

○ 환자정보

- (8.10)정00(59세) 설사증상으로 미레로21병원 1인실에 격리,치료
- (8.18)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의뢰
(8.22)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결과 V.cholerae 확인(콜레라균)
- * 14:50분 경 수인성질환과에서 재확인
- (8.22)청주 출입국사무소 확인
- * 2015.5.31.~6.5 외에 해외출국 내역 없음.
- 광주광역시 역학조사반 현재 환자 및 가족 역학조사 시행(8.22)
- * 방역조치 및 방문장소, 증상 등 역학조사 시행
- 접촉자정보
- 가족들은 현재 증상이 없음(부인, 딸, 아들)

붙임 2

콜레라 개요

구분	내용
병원체	○ <i>Vibrio cholerae</i> - <i>Vibrio</i>과에 속하는 그림음성막대균 • 콜레라독소(<i>cholera toxin</i>)가 분비성 설사 유발 • 독소를 발발하는 균체 함원량은 O1, O27, O37, O139 • O1과 O139는 집단 유행을 일으킴 • <i>V. cholerae</i> O1 - 생물학적특성에 따라 Classical(1~6차 유행), El Tor형(7차유행) - 환경형에 따라 세가지 아형으로 구분 • Inaba 아형, Ogawa 아형, Hikojima 아형 • <i>V. cholerae</i> O139형은 El Tor strain의 변이주
감염경로	• 날 것 또는 속익은 해산물 등을 통해 전파 • 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식품을 통해 전파
잠복기	• 범위 : 6시간~5일(보통2~3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길쭉스런게 나타나는 통증 없는 수양성 설사 • 뺨뜨물 같은 심한 설사 • 구토를 동반하기도 함 • 목통 및 발열은 거의 없음 • 무증상 감염이 많음
진단	• 대변이나 구토물에서 <i>V. Cholerae</i> O1, O139 혈청군) 균 분리동정
치료	• 보존적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신속히 보충 • 항생제 치료 : 중증 환자에서만 권유 • 정운동을 경감시키거나 기타 흡수를 촉진시키는 지시제 등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
환자 관리	• 환자격리 : 설사 증상 소실되고 48시간까지(임원격리 및 가택격리), 환자 보건자의 내설물에 오염된 물건 소독 • 전충지격리 : 발병여부 관찰 • 일반적 예방 - 안전급수 - 오염된 음식을 섭취 금지, 물과 음식물은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 - 손 씻기 - 백신 - 면역효과가 불충분하고 비용효과가 낮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음.
예 방	



붙임 3

콜레라 발생 현황

□ 국내 발생 현황(2001~2016)

- 1940년까지 29차례의 classical형 콜레라의 대규모 유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1980년(145명), 1991년(113명), 1995년(68명)에 El Tor형 콜레라 유행이 있었음
- 2001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있어 162명(확진 환자 142명)의 환자가 발생
- 2003년 이후 해외유입환자가 대부분임

(단위: 명, () 국외유입)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환자수	142(3)	2(2)	0(1)	0(10)	0(18)	0(5)	0(5)	0(5)	0(0)	0(8)	0(3)	0(0)	0(3)	0(0)	0(0)	1(0)

*국의 유입의 경우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임

□ 세계 발생 현황(2010~2014)

Cholera, areas reporting outbreaks, 2010~2014



www.who.int



붙임 4

손씻기 홍보자료

